

2026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1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1)

성경: 살전 1:1, 3-6, 10, 살후 1:1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전 1:3-6]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⁵⁾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시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I.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신약은 완전히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고 구축되었다 — 마 28:19, 계 1:4-5, 22:1-2.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⁶⁾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A. 신약 전체는 삼일 하나님과 연관된다. 삼일 하나님께서 신약을 건설하는 요소이시다 — 엡 3:16-19, 4:4-6.

[엡 3:16-19]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B. 성경은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에 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눅 15:3-32, 엡 2:18.

[눅 15:3-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⁴⁾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⁵⁾ 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⁶⁾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⁷⁾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⁸⁾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⁹⁾ 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¹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¹¹⁾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¹²⁾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¹³⁾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¹⁴⁾ 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¹⁵⁾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¹⁶⁾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¹⁷⁾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¹⁸⁾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¹⁹⁾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²⁰⁾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²¹⁾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²²⁾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²³⁾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²⁴⁾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²⁵⁾ 한편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²⁶⁾ 그래서 그가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²⁷⁾ 종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²⁹⁾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처럼 일해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런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³¹⁾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³²⁾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엡 2:18]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C.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누림과 음료로서, 생명과 빛의 원천으로서 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지배적인 원칙에 따라 쓰였다 — 시 36:8-9.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D.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하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분배하여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엡 1:3-23, 4:16, 계 21:2, 10-11.

[엡 1: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⁷⁾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⁹⁾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¹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¹⁵⁾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¹⁶⁾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¹⁸⁾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¹⁹⁾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²⁰⁾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²¹⁾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²²⁾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¹⁾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II.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삼일(三一)의 일 안에 계시되신다 — 살전 1:1, 3-6, 10, 살후 1:1.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전 1:3-6]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⁵⁾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시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 A.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고(살전 1:1, 3-4), 아들은 우리를 구출하시며(10 절), 성령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번식시키고 나눠 주며 전달하신다(5-6 절). 이러한 삼일의 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살전 1:3-4]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시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살전 1:5-6]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B. 이 부분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성한 삼일성의 활동을 보여 준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 살전 1:1, 4.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2.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후에 믿는 이들은 주님을 본받는 이들이 된다 — 살전 1:5-6.

[살전 1:5-6]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III.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보내졌다 — 살전 1:1.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A. 한 면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속했고, 다른 한 면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1.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퍼함과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 요 1:12-13, 고전 1:30, 6:17.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2.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요 3:15, 15:1, 5.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사실상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 살전 1:1, 고전 1:2, 12:4-6.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고전 12:4-6]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⁵⁾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⁶⁾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모두 그 영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그 영이 함축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이신 아버지가 계실 때마다 둘째이신 아들과 셋째이신 그 영 또한 계신다 — 마 12:28, 롬 8:11, 갈 4:4-6.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갈 4:4-6]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⁵⁾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⁶⁾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3.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들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a. 우리는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을 그 영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셋 모두가 공존하시고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 요 14:10-11.

[요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¹¹⁾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 b. 영원한 공존에 있어서 신격의 셋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영원한 상호 내재는 그분들을 하나 되게 한다.

4. 신성한 경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연속적인 세 단계로 일하시고 각각 나타나신다 — 엡 1:3-14.

[엡 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⁷⁾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⁹⁾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 때가 잘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¹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 a.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창시하시며 시작하신 분이시다 — 엡 1:3-6.

[엡 1:3-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b. 아들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창시하시며 시작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 엡 1:7-12.
 [엡 1:7-12]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⁹⁾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 때가 잘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c. 그 영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을 집행하시고 적용하신다 — 엡 1:13-14.
 [엡 1:13-14]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¹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d. 선택은 아버지께 속하고, 구출은 아들에게 속하며, 나눠 주고 번식시키는 것은 그 영께 속한다 — 살전 1:3-6, 10.
 [살전 1:3-6]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⁵⁾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데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5. 아들께서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영에 의해 오신다.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며, 그 영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 — 요 14:26, 15:26.
 [요 14: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c.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28:19, 엡 4:4-6.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1.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다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일은 없다. 오히려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되셨다 — 요 7:37-39, 빌 1:19.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3.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중요한 단계들 —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 을 언급한다.
 - a.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주님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옛 창조를 종결하셨으며, 사탄을 멸하셨다 — 엡 1:7, 롬 6:6, 히 2:14.
[엡 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 b.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새 창조를 발아시키셨다 — 고후 5:17.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c. 이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상.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4.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 안에 있는 교회이다 — 요 14:20.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a.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를 접촉하시며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 고전 15:45 하.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 b.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요 14:10-11, 16-17, 20.
[요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¹¹⁾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¹⁷⁾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c.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다.
- D.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이 우리의 생각과 활동과 온 생활을 통제할 것이다 — 잠 29:18 상, 행 26:19.
[잠 29:18]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